



드라이버 IC, 컨트롤러 개발... LED 효율적 제어에 강점

# (주)테라칩스, LED 디스플레이 토털 솔루션 제공

국내 LED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숨은 공신이 있다. LED에 가려 눈에 띄지는 않지만 LED의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드라이버 IC와 컨트롤러 시스템이 바로 주인공이다. (주)테라칩스는 드라이버 IC와 컨트롤러 시스템 개발을 기반으로 LED 토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LED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기업이다.

글 | 한정현 기자 hjn@popsign.co.kr  
사진제공 | 테라칩스

## LED 드라이버 IC와 컨트롤러 시장 확대된다

사람이 인지하는 빛을 보다 효율적이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능하는 컨트롤러 시스템은 LED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LED스크린과 미디어 파사드, 파노라마·풀컬러 LED채널사인 등은 모두 드라이버 IC와 컨트롤러 시스템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드라이버 IC와 컨트롤러 시스템 시장은 현재보다 점차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까진 터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변화의 양상은 채널사인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단색에 식상한 채널사인과 내은 규제로 인한 대체 제품으로 파노라마 LED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따라서 아직까지는 화이트나 단순 색 변환만 가능한 RGB LED 채널사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머지않아 파노라마 풀컬러 LED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주)테라칩스, LED 디스플레이 토털 솔루션 제공

테라칩스는 사인용에서부터 경관조명, 전광판, 미디어 파사드에 이르기까지 LED 연출에 관한 토털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테라칩스의 경쟁력은 크게 LED 드라이버 IC 개발, 시스템 개발, IC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 LED 드라이버 IC 제품군은 채널사인과 경관조명, 전광판과 같은 모든 옥외 디스플레이를 커버한다. 시스템 부문에서는 SD 카드, 유선(이더넷, DVI) 컨트롤러와 무선 컨트롤러 시스템도 개발·판매한다.

2006년 900MHz RFID Reader IC 개발로 본격적인 IC 개발 회사로 성장하기 시작한 테라칩스는 사인부문에 적합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 2008년 Decorative Lighting용 LED Driver IC 3종, SD Card Interface 컨트롤러, LEDraw Software 등을 잇달아 개발·출시했다.

2009년에는 채널사이용 LED 드라이버 IC 2종, 메시지 보드용 LED 드라이버 IC, 이더넷/DVI Interface 콘트

롤러, LEDnet/LEDshow 소프트웨어 개발 등 LED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입지를 굳혔다.

## LED 활용 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

테라칩스 진태훈 대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풀어주는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서 차별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처럼 테라칩스의 장점은 제품만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LED조명 기업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즉 LED조명 회사가 하나의 제품을 런칭하기 앞서 테라칩스의 제품과 솔루션을 적용하면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다.

LED 디스플레이 부문의 솔루션 공급을 기반으로 LED 조명과 백라이트, OLED 토털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신규 사업에 대한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LED 구동에 필요한 드라이버 IC와 컨트롤러를 개발·제조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라칩스는 옥·내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LED의 가능성과 영역을 확장하는데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P



LED 드라이버 IC



DVI 방식의 컨트롤러